하이브 (352820)

주가 (3월 23일)	290,500원
시가총액	12,511십억원

[Analyst] 지인해 연구위원
injae.ji@shinhan.com

BTS 컴백에 대한 신한생각

과도한 BTS 컴백 반응

- 3/20 오후 1시 BTS 완전체 앨범 발매 ⇒ 전일대비 3.0% 하락. 일부 셀온 플레이로 해석
  3/21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완전체 컴백 무대 ⇒ 3/23 15.6% 급락
- 광화문 관객 규모 26만명(정부) 예상 vs. 실제 4.2만명, 하이브 추산 10.4만명에 그쳤기 때문
  다만 무료 컴백 공연 티켓은 2.2만장 배포. 티켓 미소지 관객에 대해서는 접근 불가 조취하는 등 과잉통제, 많은 인파 예상이 보도됐던 만큼 방구석 넷플릭스 시청을 선택하는 팬덤이 있었을 가능성 등 복합적 이유
  결국 신규 앨범과 국내 컴백 무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 쏟아지며 실망 매물 출회

BTS 컴백 실제 성과

- 음반/음원: 초동만 400만 장 판매돼 BTS 커리어 하이. 3/20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송 차트에서 전곡 줄세우기 성공(1~14위). 평가가 박한 롤링스톤에서 5점 만점, 미국 데일리 톱송 1위 기록 등 전례없는 인기
- 공연: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광화문 라이브 개최로 외신은 한국적 미와 압도적인 퍼포먼스 조명. 다시보기 영상은 넷플릭스 글로벌 종합 1위 및 미국 본토 1위 달성 ⇒ IP의 글로벌 영향력, 파급력은 최상위
- 국내소비: 3/1~18 방한 입국자 110만명으로 전년대비 33% 증가. 아미 팬덤 효과 큰 것으로 파악. 월드투어 첫 공연 4/9 고양에서 열릴 때까지 수도권 호텔 객실점유율은 높은 수준 유지. 무료 공연 당일에는 통제 강화로 오히려 소비가 꺾였다는 뉴스도 있으나, 입국 후 공연 전후로 창출되는 소비 + 백화점, 면세점, 편의점, 호텔/리조트 등 유통업체들의 BTS 마케팅 효과가 맞물려 소비 증진에 기여할 전망. 무료 공연 당시 모두 들고 있었던 보라색 응원봉(4.9만원) 역시 리뉴얼 된 신규 굿즈로 위버스/리테일 등을 통해 선판매된 것

글로벌 활동 본격화로 실적 모멘텀 vs. 주가 과매도

- 3/21 광화문 공연 + 넷플릭스 1위 ⇒ 3/22 미국 뉴욕 출국 ⇒ 3/23 뉴욕 〈스포티파이 x BTS: Swimside〉 공연 ⇒ 3/25~26 NBC 지미 팰런쇼 출연 ⇒ 3/27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〈BTS: The Return〉 공개
  (더리턴 다큐멘터리는 군제대 후 컴백 무대까지 연습 기간을 담은 영화로 BTS는 연습 과정도 '수익화' 중)
  ⇒ 4/9부터 1Q27까지 대규모 월드투어(현재 기준 82회, 공연 수익 최소 2.2조원 이상) 소화
- 광화문 무대는 일단은 쇼크로 받아들여져 전일 주가에 녹여졌다면, 앞으로는 스포티파이, 넷플릭스 등 음악과 영상 부문에서 글로벌 탑플레이어들과 협업해 활동 본격화 ⇒ 바이럴 효과로 주가는 다시 안정을 찾을 전망. 1Q26는 앨범/음원/굿즈/부가판권수익 등 고마진 IP 반영돼 컨센서스 상회 예상 ⇒ 2Q26부터 온전히 월드투어 반영될 예정으로 수익 추정치는 변함 無. 26F 기준 PER만 29배까지 하락. 주가 과매도 영역 판단

Compliance Notice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(작성자: 지인해)
-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.